

제주대신문

당국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것”

교무처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해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호봉제가 폐지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수업적평가가 교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개정안이 연구업적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업적 인정환산율이 크게 낮아졌다. 주저자의 경우 저자가 2인이면 90%, 3인 70%, 4인이상 50%로 인정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2인 약 67%, 3인 50%, 4인 40%로 뚫었다. 이공계에서는 학문의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연구하는데 업적 비율이 낮아져 공정

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주홍구(수리학) 교수는 “이공계는 2인 이상이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정비율을 낮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논문과 연구를 평가절하하면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도 “외부에서 우리 대학이 낮은 연구업적을 질타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구부분 비율을 낮추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수가 연구를 많이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며 “연구를 안 하는 교수가 강의시수만 많이 채우는 것은 학생들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강의시수의

점수 상한을 기존 135점에서 165점으로 대폭 올렸다.

또 기존에는 강의시수 1학점 추가 시 15점씩 가점하고 부족시 5점씩 감점하던 것을 개정안은 1~6시수 초과 시 20점 가점, 7~9시수 초과시 15점 가점, 부족시 20점을 감점하도록 뒀다.

김옥수(영어영문학) 교수는 “교육을 강화하려면 수업시수가 아닌 수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수가 기본시수를 충족시키면 배점을 다 주고 초과시수에는 가산점 대신 충분한 강의로 보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도 “강의시수 상한이 165점이나 되면 교수가 논문을 쓰지 않고 강의만 많이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안 그래도 대학의 연구 실적이 낮은데 누가 어려운 논문을 쓰겠냐”고 반문했다.

교무처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안’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교무처는 서류상으로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심지어 교직원에게 보낸 공문에는 ‘우리 대학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업적평가를 위해 학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문장 외에는 개정취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있다.

업적평가가 교수들의 연봉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청회를 여는 등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의학과와 한 교수는 “복잡한 문서를 보내 의견수렴을 해봤자 대부분 잘 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홍구 교수도 “이 사안이 대학발전에 문제가 되면 가장 큰 책임은 교무처가 지게 될 것”이라며 “교무처에서는 최소한 대학구성원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희 기자



허항진 총장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헌화한 뒤 분향하고 있다.

김창희 동문 현대건설 CEO 선임

전남대와 협정체결

우리대학 동문인 김창희(경영학과 76년 졸) 현대엘코 부회장이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는 제주대 출신 첫 대기업 CEO다.



김창희 대표이사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창희 부회장과 김중겸 현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창희 선임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오현고와 경영학과를 졸업, 1982년 현대차에 입사해 지방대 출신으로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다. 김 부회장은 20여년간 자동차 영업을 담당해온 영업전망가로 2000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건설부 문서 정무공 회장의 신임을 얻었고, 2005년부터 현대엘코의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그는 또한 현대차 계열사 건설부문 현대엘코를 6년간 이끌면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48위에서 19위(작년 기준)로 끌어올리고 7900억원대이던 매출액도 6년 만에 1조9000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제주해비치리조트 건설과 현대차의 숙원사업이던 당진 현대제철소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냈다.

그는 2005년 본지 인터뷰를 통해 “지방대 출신이라고 부끄러워 하지 말라”며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한심스러운 것이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조언했었다. 그의 끝없는 도전정신이 결국 현대건설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서게 했다.

현대건설은 자산 약 10조원, 매출액이 12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표 건설회사다. 자동차 영업 평사원으로 입사해 30년만에 국내 최대 건설사 CEO를 맡게 된 김창희 부회장이 성공신화를 만들고 있다.

제주대가 전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지난달 25일 오후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상호 교류 △학생의 학점 상호 인정 △공동강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협정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체결됐고, 양 대학의 총장, 교무처장,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사 령

김명지(정치외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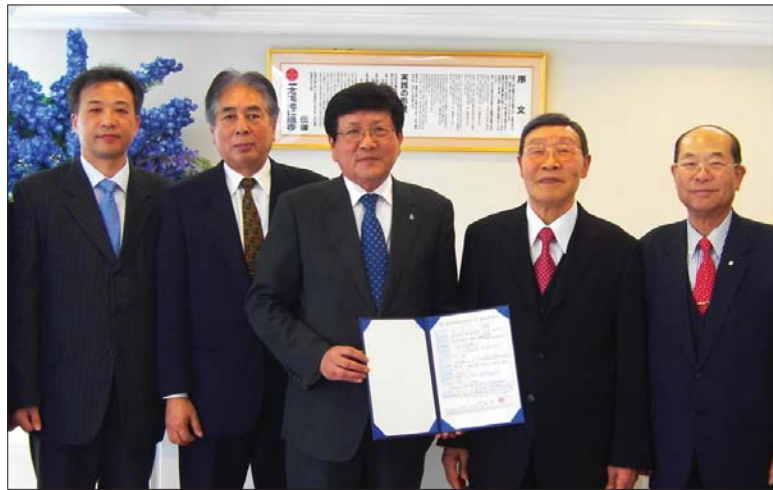
4월 6일자로
수습기자로 임명함

김창인 회장 또 6억5천만원 쾌척

지난 2008년 현금 35억원, 2010년 현금 100억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재일제주인 김창인 회장(82)이 발전기금으로 또다시 현금 6억5천만원을 쾌척했다.

김창인 회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오사카에 소재한 남해회관 회장 사무실에서 일본을 방문한 허항진 총장에게 발전기금 6억5천만원의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제주대가 시공 중에 있는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재일제주인센터 포함)’ 공사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3월 ‘제주대학교 재일본센터’ 건립 기금으로 현금 30억원, 같은 해 8월 ‘재일본제주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현금 5억원, 지난 2010년 9월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 연구 및 센터 운영’ 기금 현금 100억원을 포함해



김창인 회장이 지난달 21일 남해회관 회장 사무실에서 허항진 총장에게 발전기금 6억5천만원을 기탁했다.

모두 141억5천만원의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허항진 총장은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건립공사에 예정대로 진행

되어 현재 전체 골조공사가 완성(공정률 40%)됐으며, 2012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http://www.jejumice.or.kr / 콜센터(영어, 중국어, 일본어)운영

교수님! 오랜만이입니다!
_ 하하.. 예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열릴 회의장소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흠...
_ 제주에서 할까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나요?
네! 회의관련은 제주컨벤션뷰로가 전문가입니다.

“아! 그럼 이번회의는
제주컨벤션뷰로와 상의합시다!”

MICE 유치 및 마케팅 지원

- ▶ MICE 유치절차 안내 및 자문
- ▶ 유치 지원금 제공
- ▶ 유치 제안서 작성
- ▶ 공동 유치 마케팅 활동
- ▶ 제주 MICE시설 답사지원

MICE 개최 및 기타지원

- ▶ 개최 지원금 제공
- ▶ 회의시설, MICE 관련업체 정보제공
- ▶ 홍보물 제공 등

아름다운섬, 제주에서의 즐거운 컨벤션! 제주컨벤션뷰로 **Jeju CVB** 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 313-80) 제주웰컴센터 2층
대표전화 : (064)739-1801~4 / MICE 사업팀 : (064)739-2206~8, FAX : (064)739-1805



사설

제주지역 청년실업과 사회학적 영향

언제부터인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대학교에서도 학생 취업전략본부를 두어 학생취업을 제고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지만 괄목한 성과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

제주도의 GRDP는 전국평균의 80% 수준, 법인세 징수액은 전국의 0.16%, 소득세는 0.40% 비중으로 제주도가 항상 대정부 요구에 대응하는 '1% 논리'에 비교하면 초라한 경제력이다. 그만큼 양질의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논의나, '눈높이를 낮추어라' 하는 요구는 제주지역 젊은이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결코 중앙정부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고 있는 한 한계가 있다.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유지 및 성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인프라는 물론이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것은 '세금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성이 있지 정부의 '인위적' 일자리 창출은 관련 예산이 사

라지는 날.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고, 또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수반돼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투자 인센티브만 행기고 고용 없는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실업문제의 사회학적 의미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이 없어서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혹은 타 지역으로 나감으로써 핵가족 시대의 지역 및 가족공동체는 매우 빠르게 해체 돼가고, 모독별초, 제주어 등의 우리 제주문화는 빠른 속도로 잊히고 있다.

대회를 통해 제주어를 보존하고 하는 자구책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러운 건강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우리의 제주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생명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타 지역에 나가서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아름다운 고향 제주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을 때 우리 제주 문화의 보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자리 창출은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그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자

대학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키운 것은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체험과 고민이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인생의 격동기, 그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하기에 강의실은 너무 좁고 경직적이다.

책도 그렇다. 어쩌면 책은 이미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세상은 책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책은 그러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책을 넘어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읽어야 할 것은 책이 아니라 세상이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기쁨, 갈등, 모순으로 넘쳐나는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인지, 대학에서 정말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것이다.

이른바 '스펙', 순위, 학점, 영어점수로 대표되는 정량적 스펙이 정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인가? 기업들이 정말로 그런 스펙을 원하고 있을까? 스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일종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스펙은 젊은이들의 문제의식과 역동성, 그 무한한 가능성을 순치시키고 체제에 안주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스펙에 매몰된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끌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혁신할 것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믿지 않는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조직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소시민, 착한 젊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삶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착한 젊은이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런 영역은 '불루 오션'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붉게 물든 '레드 오션'일 뿐이다. 성공의 기회가 너무 적어 성공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방향인 것이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즐겁고 경쾌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항상 영감을 자극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왕벚꽃 나무들이 만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벚꽃이 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스펙 쌓기?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날리는 꽃잎들이 참으로 애잔하다. 이 봄에는 자발적인 문화적 실험들이, 새로운 형태의 작은 축제들이 날리는 꽃잎 속에서 함께 만개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개가자료실 공간’ 태부족… 지하에 매년 1만5천여권 보관

도서관 신축만이 해결방안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관심분야가 모여 있는 서가로 가서 자신이 직접 책을 고르는 것이다. 법학도서관 지하에는 사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책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지하보존고의 책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책의 제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책들은 학생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지하보존서고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일반서적들이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이전 된 것은 교내에 법학전문대학이 들어오면서부터다. 당시 법학전문대학 인가기준에 법학전문도서관이 있어야 인가가 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도서관에는 5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법학관련 서적을 외에도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일반 서적들도 일부 이전됐다. 언론홍보학과 한의 학생은 “평고입문에 관한 기초

서적들이 법학도서관 지하보존서고에 있어서 마음대로 책들을 열람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철학과와 한 학생도 “철학의 기본서적들이 법학도서관 지하에 있어서 당황했다”며 “도서관 내에서 서적을 둘러보면서 고를 수 없으니 학습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법학전문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도서관에는 매해 3만권 안팎의 책을 구입했다. 작년에도 3만5000여 권의 책들을 들어왔다. 하지만 공간부족 때문에 기존 서가에 있는 책 1만1000여 권과 새로 들어온 책 3500여 권을 지하보존서고로 내려 보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책의 제목을 모르면 새로 들어온 1만4000권의 책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들이 지하보존고로 이동돼 접근하기 힘들어진 것은 도서관 전체의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수 많은 책들이 잠들어 있다.

공간부족문제 때문이다. 개가자료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중앙도서관은 86년도 30만권의 책으로 개관한 이후 현재에 와서는 90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이에 도서관 확장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제3열람실을 개가자료실로 개조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간부족문제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운영팀 강권익팀장은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원 수습기자

학과 학생회비 투명성 높여야

대의원회 ‘문제 발생시 특별감사’

학과 학생회비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징수되고 있지만 이를 감사하고 제제할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에 쓰이는 학과 학생회비는 학과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두고 거둔다. 이로 인해 학과별로 학과 학생회비 금액은 물론 걷는 방식마저도 제각각이다.

학생회비는 각 학과별로 모꼬지, 학술제 등 학과행사가 차이가 있어 그 금액도 다양하다. 또 걷는 방식도 매 학년마다 1년분씩 걷는 방식과 4년분을 한꺼번에 걷는 방식, 학년별로 각기 다른 금액을 걷는 방식 등으로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과 학생회비가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다르게 납부되는 것이 형평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학생들 모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학술제 등에 드는 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또한 4년분의 학과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중간에 전과하거나 편입

·자퇴를 하는 학생들은 불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자연대학의 한 학생은 “책 값들도 비싼데 과도한 학과회비나 4년분의 학과회비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학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과생활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안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학과회비 금액이 크거나 4년분의 학과회비를 한꺼번에 받는 학생회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과 다르게 금액을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매번 행사마다 행사비를 따로 걷게되면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번거로움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학과 학생회들은 학과회비 사용내역은 학과 정기총회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밝혔다.

그러나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정기총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현용탁(원예 4)총학생회장은 “학과회비는 학과마다 진행되는 행사가 다르고, 행사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차이가 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학과행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정치외교 4)대의원회 의장은 “학과회비가 정기총회를 통해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기총회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와 학생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과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통해 문제가 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제주대청소년희망센터(센터장 박정환)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희망 찾기 프로젝트는 인터넷 게임 중독

에 빠진 청소년들을 치료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 중 하나이다. 바우처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들은 현금이나인 이용권을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프로젝트는 오는 5월 1일 시작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3회는 골프, 2회는 상담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월 19만원이지만 바우처로 18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오프닝 세미나는 오는 2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주대병원 소식



지난 2일 제주대병원 2층 대강당에서 제6회 내과연수강좌가 열리고 있다.

제주대병원, 제6회 내과연수강좌 개최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2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제6회 제주대학교병원 내과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내과연수강좌는 증례를 통한 내과질환의 최신 경향을 소개해 도내 개원의 및 봉직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내과학분야의 발전을 도모해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열린다. 매해 진행되는 이 강좌는 제주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주관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번 제6회 내과연수강좌에서는 갑상선질환, 호흡기질환, 설사질환, 위장관출혈, 요실금과 배뇨장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진이 발표를 진

행했다. 또 많은 도내 개원의 및 봉직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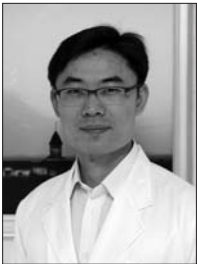
제주대병원 도내 최초 유리체절제술 시행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제주 병원 최초로 유리체절제술 시행에 성공했다.

제주대병원은 유리체절제술 기계 도입에 따라 도내 최초로 증식당노막막병증을 앓던 환자(62)에게 지난달 31일 유리체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증식당노막막병증으로 오른쪽 눈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에 발생한 증식당노막막병증은 아직까지도 내에서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 경과 관찰만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이선호 교수에게서 백내장수술과 함께 유리체절제술을 받아 시력이 호전됐다.

유리체절제술은 당뇨망막병증과 망막박리 등 여러 망막질환치료의 기본이 되는 수술방법으로 안과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하지만 고가의 수술 장비와 숙련된 의사 등이 없어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수술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외래수술을 받으러 다니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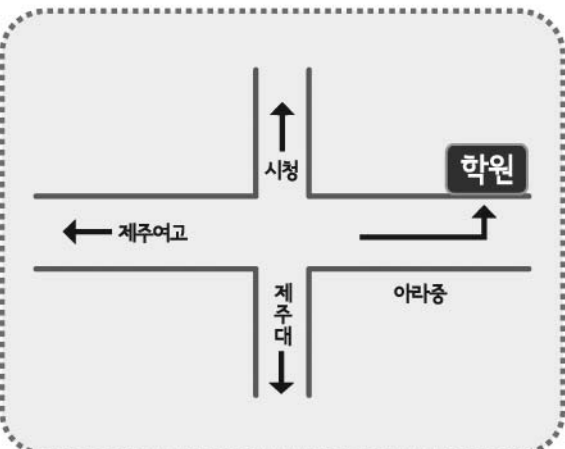


이선호 교수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학원 (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 31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 31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1년 5월16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54호(2011년 6월 8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함.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일 배우고 영어 익히고 돈까지... 해외인턴십 ‘일석삼조’



‘2011년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발대식이 3월 24일 오전 11시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취업에 필수항목인 외국어능력과 실무경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해외인턴십이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지원했다가는 시간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해외인턴십은 어떻게 준비해야 100% 즐길 수 있는지 파헤쳐보자.

해외인턴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이 필수적이다. 대상자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덕목이다. 또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은 필수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가능성이다. 해외인턴십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류심사나 면접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먼저 해외인턴십은 크게 무급인턴십과 유급인턴십으로 나뉜다. 해외인턴십을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

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급인턴십은 선택의 폭이 넓다. 특별히 기업에서 돈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는 기업들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유급인턴십은 경제적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선택의 폭이 무급인턴십보다는 적고, 분야도 한정적이다. 또 돈을 받는 만큼 업무량이 많아 부담이 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무급인턴십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할 수 있기도 하다.

이제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해외인턴십에 실제로 도전해 보자. 우리대학에서도 JDC와 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해외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양한 기관에서도 해외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인턴십의 성공여부는 지원자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

심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은(영어교육 4)씨는 “해외인턴십을 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기업선정”이라며 “기업선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초조해 하고, 조금함을 갖게 된다. 이 초조함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턴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자세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화연(중어중문 4)씨는 “외국에 혼자 나와 있다 보면 부담감을 수가 없다.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인들과 마주쳐야 한다”며 “그래야만 외국어 실력도 늘고, 다양한 시각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서희(일어일본 06학번)씨는 “외국인들과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점들이 많다.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국가의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2011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 열려

제적 219명 중 181명 참석

2011학년도 상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9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정족수 219명중 181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총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 과정 보고,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의결, 1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 학생회 예산 분배 승인 의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승인 의결 등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세칙 개정은 △기존 학생총회의 개최·의결이 재직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을 재학생회원으로 변경했다. △단과대학학생회가 단과대학총회와 단과대학학생대운영위를 모두 운영한 다라는 조항을 단과대학총회는 단과대학학생회가 열고, 단과대학학생대운영위는 단과대학대의원회가 별도로 개정했다. △학번대표가 학과 사정에 의해 바뀔 수 있으나 해당 학과에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음 선출된 학번대표가 대의원으로서 권한을



지난달 29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2011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갖도록 개정됐다.

이후 진행된 1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 학생회 예산 분배 승인,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승인 등은 재적대의원 2/3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2/3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은 지난달 7일 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17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심사위원 13명과 참관인 4명, 업체대표 2명 등 총 19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공개입찰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927점을 얻은 롯데스카이힐포토샵이 887점을 얻은 A업체를 40점 차이로 앞서 2011학년도 졸업앨범 업체로 선정됐다.

김민석(정치외교 4)총대의원의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총대의원체제가 본격적으로 틀을 갖추면서 많은 수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며 “총대의원체제를 더욱 다듬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박영준 차관 ‘선진 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 특강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선진 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 차관은 “세계 경제 중심이 한중일 3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제주가 세계 경제 중심의 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제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세계시대의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아프리카 지화자원을 독식해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와 우리나라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 아



박영준 제2차관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시아 국가들을 이용하고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제주가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약 1% 정도에 불과한데 국

립 카자흐스탄 대학 학생 중 20% 이상이 고려인”이라며 “기회는 많다. 소위 스펙, 특히 영어를 출중히 갖추고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수습기자

아열대원에산업연구소,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 선정

아열대원에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의해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이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자국의 생물자원 보전은 세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사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이 출범, △산림유전자원 국가관리 네트워크 구축 △천연자원의 수집 및 보존·관리 △수집자원의 특성평가 △산림품종개발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유전자원의 확보와 관리업무에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주)참농기지가 산

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대학 연구소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열대원에산업연구소는 2007년부터 잔디와 무궁화의 유전자원을 총 20품종 1275점을 수집해왔다. 또 현재 신품종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직접 재배 중이기도 하다.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연구소는 산림청으로부터 유전자원 관리·보존과 관련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에는 관리기관 지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이 연구소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허향진 총장과 이효연 연구소 소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 외 관련 공무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날 전달식에서 허향진 총장은 “현대에 생물자원의 다양성은 곧 나라경쟁력을 판단할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물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신산업 발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갑연 원장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연구소 소재 온실로 이동하여 그간 연구소에서 보존관리해온 무궁화 종자들을 직접 견학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은실 수습기자

전자기술 중에서도 특히 정전기력 기반의 인쇄전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쇄전자기술은 정전기력 기반 인쇄전자기술은 기반 상에 직접 전자회로를 직접적으로 프린팅하기 때문에 기존의 석판인쇄 공정과 달리 생산단가가 낮으며 살릴 수 있는 6가지 차세대 선도기술의 후보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기계시스템공학부 최경현 교수를 중심으로 인쇄전자 분야 과제를 수행해 온 연구팀을 모태로 설립됐다. 이들은 인쇄

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이 반도체·휴대전화·LCD에 이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6가지 차세대 선도기술의 후보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기계시스템공학부 최경현 교수를 중심으로 인쇄전자 분야 과제를 수행해 온 연구팀을 모태로 설립됐다. 이들은 인쇄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영숙 식품영양학과 교수) 현판식이 지난달 28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4층에서 열렸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주도에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양·위생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에 위탁 개설했다.

센터는 향후 △노내 어린이 급식소 지원업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어교육원은 지난달 31일 제1차 모의토의 경시대회를 진행했다.

황대경씨 모의토의 경시대회 최우수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이 지난달 18일 제83회 모의토의 및 2011학년도 제1차 모의토의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규토의 성적에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경시대회는 230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최우수상 황대경(수의 4), 우수상 최슬기(수의 2), 장려상 고은희(초등교육 3), 김태현(관광경영 4), 노력상 노순구(수의 3)와 3명의 학생이 선정됐다.

총장협의회서 7대 자연경관 홍보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지난달 31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공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제주가 세계 7개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앙도서관 주최

논문작성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레프웍스(refworks) 프로그램 이용교육이 지난달 30일 평생교육원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레프웍스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전자저널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한 결과를 수집하여 개인별 자료 구축 및 저장된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참고정보원 관리도구이다.

또한 이용자편의 인터페이스와 한글지원이 가능하며, 참고문헌을 생성하고 끼워 넣을 수 있다.

오덕철 도서관장은 “레프웍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궁금한 점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들을 위해 교육을 실



지난달 30일 평생교육원 101강의실에서 레프웍스 프로그램 교육이 열렸다.

시하게 됐다”면서 “도서관은 앞으로

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클리핑

이월옥 명예박사 숙환 별세

이월옥 경제학 명예박사가 지난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25년 제주시 한경면에서 태어나 16세에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협화고무공장과 (주)동경산신흥업을 설립했다. 또 그는 (주)제주팔레스개발을 설립해 제주팔레스관광호텔·하와이관광호텔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03년에는 제주대에서 명

예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특히 고인은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쾌척했으며,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고 이월옥 명예박사

허향진 총장 장지원 학생에게 장려금 전달

허향진 총장이 지난달 24일 사법대학부설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장지원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장지원 학생은 열악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착한 심성과 성실한 자세로 모범적인 인성을 지

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매우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허 총장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지원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전달했다.

한삼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약법’ 발간

한삼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가 로스쿨 교재인 「계약법」을 발간했다.

책에는 민법 제3편 채권편 중의 제2장 계약을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각론으로 나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 관련주제의 판시

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루며 소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쌓아나가도록 돕는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편집위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청회서 성토당한 ‘제주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지난달 24일 오전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대는 지난달 24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수,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 목표 △교육력 제고 △행정 효율화 △특성화 분야 육성방안 등에 대해 용역추진 중간사항을 교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석함으로써 2020년까지 추진할 주요 발전방안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호원(생명화학공학과) 산학협력단장은 “용역내용인 ‘주요 지표상으로 본 제주대의 위치’ 항목에서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에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1차 자료에 대한 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현(윤리교육과) 교수회장은 “중간보고회가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져 주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차후 연구 용역을 위해 최소한 10여 년간에 걸친 주요 지표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특성화 분야 육성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장기 발전계획에 참여했던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희(체육교육전공) 교육대학장은 “지난 2008년 교육대학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초등교육 분야 육성은 통합 제주대학교의 특성화분야 선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학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과 초등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대학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희 사무국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단계별 발전 목표를 교육역량기반구축단계, 특성화·집중화단계, 경쟁력제고단계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3단계는 10년간의 발전계획 기간 동안 동시에 추진돼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명숙 생물학과 교수는 “제주대학교를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고 특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등 제주지역에만 한계를 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제주대를 전국대학이나 해외대학과의 경쟁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성보(전기공학과) 교무처장은 “연구용

역에서 밝힌 대학발전 비전 및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진부하고 식상하다”며 “내용 중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실용 인재의 양성’이란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던 것인 만큼 대학 발전계획을 미래비전에 맞춰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 책임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센터장은 “대학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며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 즉 자연적 환경이나 산업기반 등을 특성화 분야에 반영해 제주대가 가진 강점과 전통을 가급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객관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할 때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와 합의의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자문위원단과 협력하여 대학발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보완을 해나겠다”면서 “용

역준비 시간이 짧듯해 충실한 중간보고회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최종보고회에서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훈(생물산업학부) 기획처장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최종공청회에도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학생·동문·지자체 대학평가 기대 높는데 교직원은 별로 전보 배치시 ‘직원 적성과 전문성 반영 안된다’고 인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

학생·동문·지자체 공무원들은 향후 10년 내 제주대의 종합평가 순위를 전국 대학 11~20위권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교수·직원들은 21~30위권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수 214명, 학생 2138명, 직원 210명, 동문 162명, 지자체 공무원 385명 등 총 3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에서 학생, 동문, 지자체 공무원들은 향후 10년 내 제주대의 종합평가 순위를 전국대학 11~20위권으로 예상하는 등 대학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작 우리대학 교직원들은 이보다 낮은 21~30위권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4개 특성화 분야인 관광, 해양과학, 아열대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게 평가한 반면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특성화분야 선정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

는 분야수는 5개와 3개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교수들은 단과대학이나 학문계열로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개편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위생교육과정의 경우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며, 전공 교육과정이 실습, 현장체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우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수들은 강의실 기자재 확충(33.5%), 전공별 전용강의실 확보(24.4%), 교수방법 개선지원(19.8%), 대단위 강의 축소(13.2%)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전공별 전용 강의실 확보(34.3%)와 교수방법 개선지원(30.0%)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대학 교수, 직원, 학생들은 신입생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대학특성화 강화, 대학의 교육역량 증대, 취업률 제고를 꼽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제주대의 <직원인사 및 행정운

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전보 배치시 개인의 적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32.9%), 근무평정은 직원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2.3%)고 밝혔다. 또 직원 개개인에게 적절한 양의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고(28.1%), 보직교수들의 리더십이 낮으며(25.3%), 근무평정 결과가 승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24.7%)고 평가했다.

반면에 긍정적 평가로는 직무교육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44.8%)며 가장 높게 답했고, 행정 정보화 수준이 높으며(44.7%),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개발이 어렵고(40.0%), 행정직원의 생산성이 높은 편(38.1%)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학생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타냈다. 다른 대학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고, 행정업무가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43.6%), 각종 민원업무가 신속·정확하지 못하고(33.3%), 직원들의 태도나 말씨가 불친절(33.2%)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주대학교(총장 허항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4일까지 총 13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른 문화 받아들이려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

글로벌 문화, 글로벌 마인드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글로벌(Global), 즉 세계화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단일화된 사회와 기능으로 함께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힘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요즘은 글로벌 세상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2005년 밀라노에서 성악가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왔으며, 2007년 결혼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배운 첫 한국말은 “빨리빨리”다.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사회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외국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만 족히 100만 명이 넘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수가 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다국적 민족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제 사회 변화의 핵심은 세계화이며 결국 교수와 학생 모두 다른 문화,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인식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다.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상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이다. 모든 정책도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세계를 향해 열린 정책이 돼야 한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코리아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남편을 통해서 독특한 한국 문화를 접했다. 처음엔 남편이 신기했다. 이탈리아 유학 중에도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 ‘마시고 죽자’면서 술을 마시는 거였다. 한국 사람들이 경이 많아서인지 한국 사람들끼리 잘 못치더라. 남편한테 이탈리아 친구들을 만들라고 했다. 그래서 나하고 친구가 됐고, 이탈리아 친구들도 소개했다. 이후 남편은 이탈리아 문화와 언어를 더 빨리 배우게 됐다. 한국 생활 초반 나는 본의 아니게 무서운 여자였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예’ ‘아니오’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직접 밝히지 않고 돌려서 얘기한다.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드실래요’라고 물었는데 ‘됐다’고 하시더라. 저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라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나쁜 머느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세 번까지 물어봐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몇 살 이예요’라고 묻는 한국 아줌마가 다됐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 걸 나중에 알았다. 이탈리아에선 상상도 못했던 생활 방식을 갖게 됐다.

우리들은 다른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를 배워야 한다. 외국인을 외국인이 아닌 그냥 이웃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국적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행복할 때와 슬플 때가 비슷하다.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면도 많다. 외국인을 이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을 문제로만 다룰 게 아니라 그들의 좋은 문화를 배워서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 와서, 주부가 됐지만 학구열의 끈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은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국제법 전공을 살려 가톨릭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서울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글로벌 빌리지 역삼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센터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편의사항을 알려주거나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기 위해 설치된 서비스기관이다. 이 센터를 외국인 이 단순히 정보만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외국인 사랑방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원봉사를 할 때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만날 찾아가 영어를 가르치고 함께 놀아준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쉽게, 더 가까이 익히고 이해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외국인들도 자원봉사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같이 살 수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고 싶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연극적 상상과 창조적 열정

박상원 배우

문득 ‘그린마일’ (The Green Mile)이란 영화가 떠오른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그린마일은 사형수의 방에서 전기의자로 이어지는 녹색 타일의 복도를 말한다. 곧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려 가는 길인데 레드마일이 아니라 그린마일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곧 죽더라도 살 아있는 순간이 초록빛 같은 아름다운 순간의 의미로 그린마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늘 그린마일에 서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시간에 대한 애착을 가졌으면 한다.

연기생활로 31년의 시간을 보냈다. 무대는 관객과의 전정터이다. 준비가 소홀해 관객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지는 거다. 관객을 감동 시키려면 나만의 무기를 써야 한다. 언제나 배우는 관객을 이겨야 한다. 준비가 소홀하고 무기가 없어서 관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그 배우는 서 있을 자리가 없다. 처음 배우로 대중들을 만날 때는 외모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배우로서 경쟁력 있는 얼굴은 아니다.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기의식을 느껴 연기에 더욱 몰입했다. 위기의식은 버려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채찍질이다. 지금은 관객에게 지기 싫다는 생각을 위기의식으로 갖고 있다. 야유와 조소를 받았을 때의 장피함을 생각한다면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게 된다.

미술과 사진을 좋아한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펜과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기를 즐긴다.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도 좋아한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배우의 상상’으로 찍는다. 인생이 흘

러가는 동영상이라면 사진은 한순간을 표현한다. 찍을 당시의 시공간을 압축하는 묘미가 있다. 제가 올랐도 방파제에서 갈매기가 비상 장면을 찍었다면 그 사진에는 제 오감이 느꼈던 감정이 사진에 담진다고 보는 거다. 사진에는 없지만 방파제를 내려가면서 부서지는 잔 파도 냄새부터 갈매기가 날아간 허공에 이르기까지 그 갈매기 사진 한 장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찍는다. 첫 번째 사진전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전시했던 사진 48점은 4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찍은 것이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표정들이 잡혔다. 전시를 위해 작품들을 모아놓고 보니 시간으로 따져서 총 1초도 안된다. 1/125초, 1/60초로 찍다 보니 48점을 모아도 1초가 채 안 되는 거였다. 전시 뒤에 ‘1분이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게 허무였다면, 한 달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다양한 시간들, 아름다움이 스쳐지나갔던 거다.

배우는 카메라 안에 담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동영상이면 사진이면 담기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카메라 메커니즘을 알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나중에 촬영된 내 모습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 굳이 설명한다면 배우의 시선 같은 것이 있다. 바로 ‘상상과 망상’이다. 저에게 큰 틀인데, 제가 연극을 하면 연극적 상상과 창조적 망상으로, 사진작업을 하면 사진적 상상과 창조적 망상이 작업의 화두가 된다. 상상과 망상은 비슷할 수도 상반된 것일 수도 있다. 벚꽃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그려볼 때 ‘봄날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벚꽃’이 ‘일반적 상상’이라면 어찌까지 화려하게 폼되지만 며칠 만에 수명을 다해 나무 밑에 떨어진 초라한 모습에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이나 삶의 허무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벚꽃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박상원 배우

수 있다. 이를 ‘사진적 상상’이라 하고 상식을 뛰어넘어 뒤집는 것을 ‘창조적 망상’이라 부르고 있다. 제가 하고 있는 드라마, 연극, 사진에서 이런 ‘상상과 망상’이 나를 이끌어 가는 힘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는 상당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바지 입고 염색한 교수들도 많다. 연극적 상상을 펼치면 형식적인 배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창조가 이뤄질 수 있다. 연극적 상상은 두 개의 날개처럼 훨씬 높은 곳으로 올려다 주고 더 넓고 깊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울예술대학에서 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름이나를 보여주진 보다는 나의 행동, 역량, 능력, 스타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내 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이름 써 자를 더 괜찮은 이름으로 갈고 닦는 것이 지금 제 상상의 범주 안에 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전문간호사 도입취지를 살리자

악슬기고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과제

과거에 비해 간호사는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로 바뀌었고,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과로 인식되면서 간호학과와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다. 전문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를 알고자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효과를 학문적으로 입증하여 이 제도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비취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그려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몇 십 년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몇 해 전 병원을 배경으로 한 국내 한 드라마에서, 전문간호사의 현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된 적이 있다. 의사와

이 학회로 잠시 부재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위급상황을 맞게 되었고,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몇 십 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환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전문간호사의 응급 처치로 이 환자는 위급한 순간을 넘기고 해피엔딩을 맞이하였지만, 그 후 벌어진 의료진의 상황은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전문간호사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충분히 준비된 인력이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전문간호사에게 그 상황을 맡길 것이라는 의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근거로 처치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의료진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전문간호사 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 빌 클린턴 정부가 수행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문간호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나 암 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차 의료기관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사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함과 더불어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임상 실습이 강조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양성되어 왔다.

중환자 전문간호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적용 일수가 감소하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거나, 전공의 대신 전문간호사가 전문의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수행하는 업무량은 더 많으면서 환자의 재입원수는 감소하였고, 환자의 치료 결과나 합병증 발생률은 비슷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나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들은 전문간호사가 의사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인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들이다. 즉, 전문간호사는 상급간호 실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 개선 및 의료비용, 만족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력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학술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이전부터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이미 전문간호사가 운영되어 왔다. 일부 사립 대형병원들에서 시작된 전문간호사제도는 각 기관별로 운영이 확대되면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의도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법제화 추진 시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 취지를 '전문분야에서 의사인력과 비교할 때 보다 비용-효과적인 인력이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실무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문직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 56조는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화된 분야별 간호사를 인정한 것으로,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총 13개 분야(보건의료, 정신, 가정, 응급, 산업, 노인, 호스피스, 중환자, 감염관리, 아동, 임상, 종양)로 확대하였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제시한 임상경력을 충족하는 간호사가 석사과정인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간호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삼성서울병원) 전문간호사 과정 중 미국 실습 사진.

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과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실습이 강화되어 있으며, 자격증 취득까지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약 8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과정에 입학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에도 매년 300~400명 이상의 전문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전문간호사들이 비용-효과적인 인력임이 계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그 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의료 환경이 다른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외국에 비해 작고, 의사의 권한에 대한 위임의 정도 등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의 의료 환경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간호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연구는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이다. 필자의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간호서비스가 암환자의 통증 및 피로를 감소시키고, 만족도 및 삶의 질을 증가시켰으며, 예기치 않은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간과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암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암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필수 인력으로 종양전문간호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만성 질환 관리나 감염 환자 관리 시 가정전문간호사를 운영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필수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이러한 전문간호사

인력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전문간호사들은 고용의 주체인 각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고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보면 간호사는 소비의 주체이지 생산의 주체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전문간호사들을 고용한다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만 오를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되는 전문간호사들을 고용 주체인 각 의료기관에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어찌될 것인가? 따라서, 간호서비스가 환자의 증상이나 삶의 질 등과 같은 간호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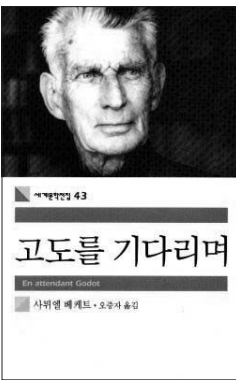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남아야 할 산은 많다.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가능한 것인지, 국내 현실에서 전문가직 상급 실무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사·전문간호사·간호사 간 행위의 중복 시 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현재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전문간호사의 행위를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 등이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할 일이 많기에 더욱 힘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민영(간호학과) 교수

● 안전의 책



〈고도를 기다리며〉
사뮈엘 베케트 지음 / 오종자 옮김

이듬해에 무대에 상연되면서 현대극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즉 이 연극은 전통적인 사실주의극에 반기를 든 전후 부조극의 고전이 되고 이런 면을 높이 평가받아 사뮈엘 베케트는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이 작품은 분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작가는 제목을 통해서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의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물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작품 속에 드러난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왜 그들이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밝히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작가는 고도의 정체를 철저한 익명성을 통해서 은폐시킨다. 따라서 고도는 독자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폭을 가진다. 독자는 등장인물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작품의 내용을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등장인물은 모두 5명인데, 그들은 바로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포조, 럭키, 소년이다. 작가는 이 등장인물들 1막에 등장한 순서대로 2막에도 등장시키며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가 무한한 반복이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노력임을 암시한다.

인물들의 등장 순서는 짝을 이루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하고 이들은 막이 끝날 때까지 무대에 함께한다. 반면에 포조와 럭키는 막의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며 소년은 막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들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저녁 무렵에 어느 시골길 버드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포

조와 럭키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며 무료함을 달랠 때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다. 또한 소년은 포조와 럭키가 퇴장하고 나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고도의 소식을 전하는 고도의 심부름꾼으로 고도의 염소를 지키는 인물이다.

한편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친구사이인데 반하여 포조와 럭키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이다. 또한 소년은 이 회극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고도의 심부름꾼으로서 고도가 실재함을 증명하고 나아가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에게 내일이면 고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의 무료하고 지루한 기다림을 부여하는 매개자이다.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작가는 블라디미르의 대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를 투영한다. 블라디미르는 포기하려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애써 다 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는 고도를 기

다리는 데에는 끈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품 내에 작가가 심어놓은 의미이고 작품 밖에서 볼 때 독자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대화이다.

에스트라공은 극 중에서 낮잠을 여러 번 자고 꿈을 꾸는 데 반하여 블라디미르는 낮잠 대신에 사색을 많이 하지만 결국 외로워서 에스트라공이 자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작가가 희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교육에서 해방시켜 주고 존재하게 만드는 장치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변형하여 '대화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입장이자

일찍 보면 이 작품에 지절여진 대사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책을 읽고 나서 독자 스스로 해석해 봄으로써 대사들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반추하는 것이 이 책의 모미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 부여는 각자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이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임은 틀림없다. 여러 번 읽어 보면 불수록 여러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이 작품이 단순한 기분전환이나 심심풀이 이상이 되길 바란다.

고영재 철학과 조교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1. 세입예산

과목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D/B)		
회 비 수 입	36,136,171	81.2%	35,195,224	72.5%	940,947	2.7%
이 월 금	3,154,576	7.1%	6,287,033	12.9%	-3,132,457	-49.8%
보 조 금	1,611,674	3.6%	1,836,806	3.8%	-225,132	-12.3%
당 수 입	452,000	1.0%	828,000	1.7%	-376,000	-45.4%
소 계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6.3%
수 입 대 체 경 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28.8%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과목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D/B)	
과목	구성비	과목	구성비		
기초연비	26,208,222	58.9%	24,885,157	51.4%	1,223,065 4.9%
운영비	5,798,192	13.0%	6,311,034	13.0%	-512,842 -8.1%
사업비	1,848,005	20.6%	12,650,870	26.1%	-3,502,865 -27.7%
교내외지출	1	0.0%	1	0.0%	0 0.0%
장비지출	1	0.0%	1	0.0%	0 0.0%
매번비	200,000	0.4%	200,000	0.4%	0 0.0%
소계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6.3%
수입대체경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28.8%
합계	44,518,700	100.0%	48,576,287	100.0%	-4,057,587 -8.4%

□ 과목별 세출예산

과목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D/B)		
인 건 비	18,519,138	41.6%	17,384,928	35.8%	1,134,210	6.5%
교 내 외 지 출	9,421,215	21.2%	10,175,982	20.9%	-754,767	-7.4%
교 상 이 전 비	10,943,539	24.6%	12,506,901	25.8%	-1,563,362	-12.5%
자 본 적 유 출 금	2,270,527	5.1%	3,879,310	8.0%	-1,608,783	-41.5%
과 지 출 이 지 출	1	0.0%	1	0.0%	0	0.0%
과 지 지 출	1	0.0%	1	0.0%	0	0.0%
매 회 비	200,000	0.4%	200,000	0.4%	0	0.0%
소 계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6.3%
수 입 대 체 경 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28.6%
합 계	44,518,700	100.0%	48,576,287	100.0%	-4,057,587	-8.4%

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과목	수액	과목	수액	과목	수액
합	인건비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828,000	교내외지출	376,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수입대체경비	교내외지출	3,164,279	교내외지출	4,429,224	교내외지출	1,264,94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4,518,700	교내외지출	48,576,287	교내외지출	100,000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1,354,421	교내외지출	44,147,063	교내외지출	2,792,64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26,208,222	교내외지출	24,885,157	교내외지출	1,223,065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3,154,576	교내외지출	6,287,033	교내외지출	3,132,457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1,611,674	교내외지출	1,836,806	교내외지출	225,132
합	교내외지출	교내외지출	452,000	교내외지출			

202	인	국	내	비	146,424	0.3%	130,250	0.3%	17,974
203	인	국	내	비	105,624	0.2%	108,260	0.2%	-2,636
204	인	국	외	비	42,800	0.1%	42,200	0.0%	20,800
204	인	국	외	비	15,000	0.0%	15,000	0.0%	0
205	인	국	외	비	12,800	0.0%	12,200	0.0%	24,580
205	인	국	외	비	1,500	0.0%	0	0.0%	1,500
206	인	국	외	비	598,322	1.1%	718,932	1.5%	-209,700
301	인	국	외	비	231,985	0.4%	301,144	0.6%	-65,659
302	인	국	외	비	1,500	0.0%	0	0.0%	1,500
303	인	국	외	비	4,786,261	9.1%	6,442,022	13.9%	-1,657,761
404	인	국	외	비	1,086,160	2.1%	1,285,363	2.6%	-209,423
406	인	국	외	비	558,000	1.3%	148,000	0.3%	400,000
407	인	국	외	비	314,728	0.7%	2,081,923	4.3%	-1,767,195
단	지	출							
301	단	지	출		1	0.0%	1	0.0%	0
302	단	지	출		1	0.0%	1	0.0%	0
303	단	지	출		200,000	0.4%	200,000	0.4%	0
합	계	인	국	외	2,873,941	5.8%	4,928,924	10.2%	-1,649,983
101	인	국	내	비	316,832	0.7%	73,928	0.2%	262,904
101	인	국	내	비	308,732	0.7%	73,928	0.2%	234,804
102	인	국	외	비	628,121	1.3%	1,348,469	2.8%	-720,348
102	인	국	외	비	1,452	0.0%	20,240	0.0%	-18,788
104	인	국	외	비	126,660	0.3%	227,800	0.5%	-101,140
104	인	국	외	비	43,550	0.0%	80,000	0.0%	-7,300
104	인	국	외	비	3,560	0.0%	44,000	0.0%	-40,440
201	인	국	외	비	591,328	1.3%	1,414,708	3.1%	-559,881
인	국	외	비	419,798	0.9%	555,786	1.1%	-106,488	
인	국	외	비	75,530	0.2%	112,786	0.2%	-37,150	
인	국	외	비	0	0.0%	9,800	0.0%	-9,800	
인	국	외	비	6,948	0.0%	10,716	0.0%	-10,716	
인	국	외	비	26,010	0.1%	12,848	0.0%	16,162	
인	국	외	비	18,650	0.0%	2,000	0.0%	10,450	
인	국	외	비	3,900	0.0%	26,228	0.1%	-33,325	
인	국	외	비	594,600	1.3%	1,414,708	3.1%	-559,881	
단	지	출		17,700	0.0%	51,500	0.0%	-11,150	
202	인	국	내	비	68,990	0.2%	91,725	0.2%	-16,670
203	인	국	내	비	106,360	0.2%	87,720	0.2%	12,780
204	인	국	외	비	45,400	0.1%	16,400	0.0%	24,400
204	인	국	외	비	7,400	0.0%	18,300	0.0%	-2,712
205	인	국	외	비	21,123	0.0%	17,949	0.0%	3,674
205	인	국	외	비	63,000	0.1%	63,000	0.1%	0
301	인	국	외	비	59,882	0.1%	53,047	0.1%	6,115
302	인	국	외	비	3,000	0.0%	32,400	0.0%	-29,400
303	인	국	외	비	272,034	0.6%	287,400	0.6%	-4,664
307	인	국	외	비	52,550	0.1%	76,140	0.1%	-20,114
단	지	출		491,248	1.1%	870,000	1.8%	-388,752	
104	인	국	외	비	355,368	0.8%	840	0.0%	0
201	인	국	외	비	355,368	0.8%	466,144	1.0%	-386,744
인	국	외	비	11,667	0.0%	78,872	0.2%	-67,106	
인	국	외	비	296,469	0.7%	400,023	0.8%	-117,583	
인	국	외	비	0	0.0%	220	0.0%	-220	
인	국	외	비	3,000	0.0%	32,400	0.0%	-29,400	
인	국	외	비	0	0.0%	3,200	0.0%	-3,200	
단	지	출		100	0.0%	0	0.0%	100	
202	인	국	내	비	5,760	0.0%	36,010	0.1%	-30,250
203	인	국	내	비	5,760	0.0%	11,010	0.0%	-5,250
204	인	국	외	비	34,800	0.1%	68,485	0.1%	-25,915
301	인	국	외	비	34,800	0.1%	68,485	0.1%	-40
301	인	국	외	비	118,653	0.2%	121,859	0.2%	-13,026
304	인	국	외	비	3,000	0.0%	32,400	0.0%	-29,400
305	인	국	외	비	16,269	0.0%	3,165	0.0%	-15,088
407	인	국	외	비	12,300	0.0%	5,760	0.0%	6,550

나. 과목별 세출예산 총괄표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D=B)
		과목	액	과목	액		
한		계	44,518,700	100.0%	48,576,287	100.0%	-4,057,587
운		영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경		비	18,519,138	41.6%	17,384,928	35.8%	1,134,210
101	기	본	4,312,228	9.7%	3,799,002	7.8%	513,226
	01	상	3,786,188	8.4%	3,267,632	6.7%	518,556
	02	상	250,786	0.6%	228,776	0.5%	22,010
	03	상	185,694	0.4%	185,073	0.4%	621
102	04	초	139,560	0.3%	119,521	0.2%	20,039
	05	기	1,939,071	4.4%	1,567,591	3.2%	371,480
103	02	인	152,757	0.3%	169,830	0.3%	-17,073
104	01	보	12,115,082	27.2%	11,848,505	24.4%	266,577
	01	상	3,389,303	7.6%	3,421,012	7.0%	-31,709
	02	상	731,808	1.6%	739,430	1.5%	-7,622
	03	상	2,650,105	6.0%	2,268,984	4.7%	381,121
	04	치	804,468	1.8%	616,220	1.3%	188,248
	05	국	1,611,674	3.6%	1,836,806	3.8%	-225,132
	06	국	2,058,538	4.6%	2,088,024	4.3%	-29,486
	07	국	866,186	2.0%	885,029	1.8%	-18,843
영		비	9,421,215	21.2%	10,175,922	20.9%	-754,707
201	학	교	6,986,002	15.7%	7,219,725	14.9%	-233,723
	01	공	1,471,620	3.3%	1,418,775	2.9%	52,845
	02	공	1,074,557	2.4%	1,578,493	3.2%	-503,936
	03	보	8,110	0.0%	10,250	0.0%	-2,140
	04	국	23,488	0.1%	23,867	0.0%	-379
	06	용	102,320	0.2%	85,305	0.2%	17,015
	07	인	431,126	1.0%	187,751	0.4%	243,375
	08	연	335,800	0.8%	437,840	0.9%	-102,040
	09	시	3,010,598	6.8%	2,949,241	6.1%	61,357
	10	의	24,324	0.1%	24,218	0.0%	106
	11	제	504,059	1.1%	509,985	1.0%	-5,926
	12	기	771,729	1.7%	769,819	1.6%	1,910
202	01	국	728,329	1.6%	735,457	1.5%	-7,128
	02	국	43,400	0.1%	34,362	0.1%	9,038
203	03	국	105,000	0.2%	108,000	0.2%	-3,000
204	04	일	554,662	1.2%	612,501	1.3%	-57,839
205	01	보	491,590	1.1%	743,945	1.5%	-252,355
206	02	연	512,232	1.2%	721,932	1.5%	-209,700
상		이	10,943,538	24.6%	12,506,901	25.7%	-1,563,363
301	01	보	4,784,479	10.7%	4,591,145	9.5%	193,334
302	01	보	637,361	1.4%	699,356	1.4%	-61,995
303	01	보	100,000	0.2%	100,000	0.2%	0

	305	01	경 상 보 조	5,421,699	12.2%	7,146,400	14.7%	-1,724,701	
	306	01	경 상 보 조	2,270,527	5.1%	3,879,310	8.0%	-1,608,783	
587	404	01	시 설 비	1,085,160	2.4%	1,285,583	2.6%	-200,423	
542	406	01	시 설 부 대 비	558,000	1.3%	148,000	0.3%	410,000	
	407	01	자 산 취득 비	627,367	1.4%	2,445,727	5.0%	-1,818,360	
226	과 년 도 지 출	1	0.0%	1	0.0%	0			
556	과 년 도 지 출	1	0.0%	1	0.0%	0			
10	예	201	국 회 비	200,000	0.4%	200,000	0.4%	0	
321	인	201	수 입 대 체 경 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339	인	201	건 전 비	1,424,404	3.2%	1,733,626	3.6%	-309,222	
480		201	기 본 분	316,832	0.7%	73,928	0.2%	242,904	
473		101	기 본 급	308,732	0.7%	73,928	0.2%	234,804	
577		02	상 여 단	8,100	0.0%	226,776	0.5%	-218,676	
510		102	기 타 수 단	928,710	2.1%	1,348,458	2.8%	-419,748	
522		103	인 용 상	1,452	0.0%	20,240	0.0%	-18,788	
821		104	03 연 구 자 료 비	129,060	0.3%	236,200	0.5%	-107,140	
248		104	06 교 계 개발 연구 비	3,500	0.0%	44,000	0.1%	-40,500	
132		104	07 교육 지원 활동 비	44,850	0.1%	10,800	0.0%	34,050	
486	운	201	경 영 비	1,194,625	2.7%	1,992,874	4.1%	-798,249	
743		201	학 교 운 영 비	886,664	2.0%	1,636,880	3.4%	-750,216	
720		01	인 원 보 수 용 비	431,465	1.0%	634,559	1.3%	-203,094	
845		02	공공요금 및 제세	366,099	0.8%	520,832	1.1%	-154,733	
936		03	의 료 복 비	0	0.0%	7,120	0.0%	-7,120	
140		05	특 간 매 서 비	9,140	0.0%	15,246	0.0%	-6,106	
179		06	운 영 수 단	29,010	0.1%	16,408	0.0%	12,962	
310		07	인 차 료 비	18,650	0.0%	8,200	0.0%	10,450	
015		08	인 료 보 비	3,000	0.0%	56,225	0.1%	-53,225	
317		09	시 설 장 비 유지 비	18,600	0.0%	356,850	0.7%	-338,250	
040		11	세 로 지 비	10,700	0.0%	21,800	0.0%	-11,100	
357	202	01	여 비	115,150	0.3%	133,730	0.3%	-18,580	
106		01	국 내 여 비	74,750	0.2%	92,730	0.2%	-17,980	
826		02	국 외 여 비	40,400	0.1%	41,000	0.1%	-600	
910	204	01	인 문 투 자 건 비	108,688	0.2%	141,815	0.3%	-33,127	
128	205	01	보 리 후 생 비	21,123	0.0%	17,449	0.0%	3,674	
308	206	01	인 구 계 발 비	63,000	0.1%	63,000	0.1%	0	
000	경	상 이 전 비		480,900	1.1%	624,810	1.3%	-143,910	
359	301	01	미 퇴 충 상 단	59,862	0.1%	54,147	0.1%	5,715	
335	302	01	미 퇴 충 상 단	24,082	0.1%	32,366	0.1%	-8,284	
700	303	01	배 상 금	108,653	0.2%	121,659	0.3%	-13,006	
362	304	01	태 연 금	0	0.0%	117,863	0.2%	-117,863	
334	305	01	경 상 보 조	288,303	0.6%	298,785	0.6%	-10,482	
995	자	본 지 출 상 경 비		64,350	0.1%	77,914	0.2%	-13,564	
0	407	01	자 산 취득 비	64,350	0.1%	77,914	0.2%	-13,564	



무론유설

고영철
법정대학장

법정대학 2층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구라도서관’과 ‘구라학습당’이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도서관이고, 서쪽 입구로 들어가면 학습당입니다.

한글로 구라는 흔히 ‘거짓말’을 대신 쓰는 일종의 비속어이지만, 한자로 구라(口羅)는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오는 비단처럼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고영철의 정의). 영어로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됩니다. 일본어로 구라(くら)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귀중한 물품 등을 쌓아두거나 보관하는 곳간이나 창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구라는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도서관 앞에 접두사로 붙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곳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진리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평가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口羅冊)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법정대 교수님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기증한 것들입니다. 책

장의 각 칸마다 누가 어떤 책을 기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아무개의 기증도서 코너’라는 표창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구라학습당’이라고 문패를 단 것은 이곳이 또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 읽고, 꿈꾸고, 상상하고, 탐색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도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결국 하늘이 쳐 놓은 탓에 걸려들게 되어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개의 거짓말을 관리하려면 2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다시 또 4개의 거짓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거짓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지난 8월 국회 청문회 테스트(위장전입·부동산 투기·병역기피·세금탈루·논문표절 등)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걸려 탈락한 장관후보들의 어록(?)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자신을 성찰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 구라(거짓/가짜)이고, 안구라(참)인지, 그리고 어디

까지가 구라(口羅)이고 비구라(非口羅)인지를 식별해, 항상 옳은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구라이고, 그 힘과 생각은 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류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성인, 사상가, 문인, 학자 그리고 각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도 대부분 입으로 먹고 살았던 위대한 구라군(口羅君)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범인(凡人)들에 비해 독서량도 많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보려면 TV나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나 리모컨을 돌리면 되지만 미래를 보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웅의 꿈을 스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라도서관은 이처럼 영웅들의 꿈과 삶을 전시에 놓은 박물관이면서 이들의 꿈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그리고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전사의 학습당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구라도서관’, 다른 한쪽에는 ‘구라학습당’이라는 문패를 달았습니다.

오늘도 안팎이 내다보이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날찍하게 배치된 4인 또는 6인용 책상들에 앉아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엔 고급스런 색깔의 양탄자가 깔려 있고, 두개의 출입문 양쪽에는 응접실용 스탠드가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창밖을 마주 보게 배치한 테이블위에 자리한 개인독서용 스탠드에서는 톱 건드리기만 해도 온은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대형 책장에는 약 2천여 권의 책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약 8백여권).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세계지도 속의 비단길을 걷다 보면, 세계는 넓고 갈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매일 안방처럼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이 언젠가는 저 수천 권 책 속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설적인 영웅 돈키호테 같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인류베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우물이라도 제대로 파라

CEO에게 듣는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는 ‘CEO에게 듣는다’ 세 번째 강좌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LED 전문기업인 삼성 LED의 사장을 역임한 김재욱씨가 ‘글로벌 챌린지(Global challenge)’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전 사장은 삼성의 반도체사업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성공의 덕목을 강연했다. 김씨는 먼저 적절한 시기와 과감한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회는 꼭 찾아오고, 그 기회를 발견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을 찾아내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 속에 세상은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 자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하려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진다”며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은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자신의 능력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지나 실체함에 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려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일을 해내는 것이 신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사장은 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는 “꿈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그 꿈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모든 일에 학습하는 자세로 임한 것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 잘못된 점은 반성을 통해 배우고, 잘한 점은 본 받으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미래의 닥쳐올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
삼성 LED 전 사장

그는 “미래는 예언지고갈, 기후변화, 물 부족, 노령화 등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그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주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이든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보배 기자

술 강권하는 음주문화 개선을

술을 권하고 강요당하는 것일까?

첫째로,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범람상으로 성인임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종의 ‘통과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양감을 상징한다. 새내기들은 고등학교시절까지 어른들로부터 금지됐던 ‘술’을 통해 통제과파라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 재학생들은 본인들이 즐겨왔던 것이기에 새나이에 강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술의 고유한 성질로, 모든 사람들이 딱딱한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술에 취해 모든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함께 즐기는 수단이 ‘술’ 밖에 없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뒤편이

문화는 술을 잘 못마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통의 장’이 아니라 ‘소외의 장’이 되고 있다. 술도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혹자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는 반면 괴로운 이들도 있다. 그런데 몇몇 집단에서는 후자들의 기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것을 강요한다.

특히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다. 뒤편에서 술을 강요받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은 종종 뉴스에까지 등장한다. 그러한 캠퍼스의 살풍경은 이제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말 뒤편이 술을 마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집단의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각 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어떤가? 국문과에서는 농사 시설에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미술전공생들은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 공공미술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사한다면? 뒤편이 문화가 이렇게 바뀐다면 놀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올바른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이라 한다. 우리 모두가 뒤편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의미 없는 게임들을 반복하기 보다는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자. 앞으로 제주대에서 흥청망청 즐기만 하는 뒤편이보다는 진짜 대학생다운 뒤편이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독자기고

김명지
정치외교 1

잘못된 ‘뒤편이 문화’로 캠퍼스가 비틀거리고 있다. 대학에서 행사가 끝나면 늘 뒤편이가 마련된다. 뒤편이는 행사가 끝난 뒤편에 즐기는 자리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꼭 뒤편이에 ‘술’이 빠지지 않는다. 요즘 대학가의 뒤편이는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술을 마시러 가는 자리로 변질된 것 같다.

우리의 뒤편이 방식은 정해져있다. ‘일단 우리는 시청 벽화 앞에서 만난다. 그리고 시청근로 주점으로 향한다.’ 언제부터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왜 대학생은



독자기고

강재연
생물 2

새로운 해가 시작할 때 남들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필자 또한 계획을 세웠다. ‘도서관을 활용하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으로 향한다.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좌석 배정기에서 자리표를 뽑아들고 열람실로 들어간다. 규칙 상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배정기로 앉을 자리를 미리 골라 자리를 예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하렷다고 이것저것 책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내가 지정한 자리를 찾으니 이계원집, 누군가가 벌써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책들이 덩그러니 놓여있기 일쑤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달란 말도 해봤고, 책만 놓여있으면 옆으로 밀어놓

도서관 이용 예절 엉망, 타인 불편은 전혀 고려안해

고 공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다보니 일일이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겹고, 책 치워놓는 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좌석을 반납하고 다른 빈자리를 찾다가 그 자리 번호표를 새로 발급받고 들어간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분명 도서관 입구에 딱히나 도서관 이용방법이 스크린에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학생 누구나 학생증을 가지고 있다. 그저 열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증을 바코드에 찍고 자리를 골라 인쇄되어 나오는 종이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관련한 사람이 있는 건가? 그저 열람실 들어가기 전에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는

다는 걸까?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당당히 어기고 그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지 않은가. 필자를 포함해 모든 학생들이 ‘자리표 뽑아봤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 비켜달라고 하진 않을까?’ 같은 불안감 없이 멋있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열람실의 그 많은 자리 중 단 한 곳에 앉았을 뿐이면서도 맘 편히 공부할 수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러한 불만의 소리는 종종 들려온다. 제주대신문에서 종종 지적했었던 부분들이고 시험기간에는 총학생회에서도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때까지 제도와 규칙에 묶여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안다. 드디어 대학생이 되어 예전과는 달리 자유가 생겼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치지 못하고 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작은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성인임을 주장하는 것도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 좌석 배정 규칙을 준수하며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좀 더 질서정연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제주대 학생들에게 권한다.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학창시절을 보내자고.

동문칼럼

모든 것은 연관돼 있고, 변화 발전한다

1993년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선배로부터 들었던 조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은 연관되어있고 변화 발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크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



박주희(식품영양학과 03학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등학교 시절, 최대한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용돈을 조금씩 모아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가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게 인연이었던 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 영양사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졸업직후 IMF시대를 겪으며 전공을 살리지 못했고, 우연히 신문에 나온 사회복지종사자모집공고를 보고 복지현장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고등학교시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의원이 되기 전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오랜시간 사회복지일꾼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의원이 된 지금, 의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행복복 복지공동체>를 실현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새내기였던 1993년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지키기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저지투쟁으로 학생회 일부만이 아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양성하게 활동을 했던 해였습니다. 저 또한 그해 새내기 선봉대에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한 많은 토론을 통해 깊이 고민하면서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 해야만 했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대학시절 아주 많은 경험 중 하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그때의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현재 의원활동을 하게 된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그때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혹은 그 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판단을 바르게 하려면, 많은 경험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주변의 많은 이들과 공감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분노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이 되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회에 분노할 줄 알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 많은 것들과 연관되어있고, 또한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 연을 맺은 것이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도중환님의 <마음의 원표>중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가지 맨 끝의 가늘고 어린 가지가 가장 싱싱합니다. 그곳이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꽃은 그 어린 가지 위에서 피어납니다. 잎들도 그 형습니다. 어린잎이 나무의 생명을 끌고 갑니다. 어린 가지처럼 새로운 시대도 그렇게 옵니다.

문득 이 글귀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대학이며 또한 그곳에서 피어나는 어린 잎은 대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린가지가, 그 어린잎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세상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쯤 급세 터질 듯 꽃망울을 품고 있는 제주대교정을 설레임으로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의원 박주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훗날 또 어떠한 인연을 맺고, 세상속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해나갈지 상상해보며,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고 꾸준히 성실함을 잊지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어학연수, 국제교류센터가 답이다

독자기고

지난해 11월 29일 대양의 국제교류센터 주관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면접의 날이었다. 면접을 보기 전 지원 자격으로는 TOEIC 500점 이상, 학부성적 3.0 이상(전 학기까지 평점 평균)이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히 진행됐다.

영어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질문도 있었지만 영어에 대한 것이 아닌, 평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앞으로 영어공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리고 만일 이번 면접에 합격해서 필리핀에 가게 될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식의 질문 위주였다.

물론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은 영어권 외국인 못지 않았지만 나의 영어 실력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영어에 대한 적극성, 흥미도를 물어보셨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라면 현재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자기 자신의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잘해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학교의 어학연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5일 남자 7명, 여자 10명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필리핀 CEBU로 출발했다. 우리는 6주간 필리핀 CEBU에 있는 CDU ESL CENTER에서 스파르타 코스를 이수했다. 스파르타 코스는 주5일 하루에 8시간 영어강의와 야간자율학습 3시간이 포함돼 있는 코스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1시간 넘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

만 스파르타 코스는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이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인 선생님들과의 1:1 수업을 4시간만 할 수 있고 수업 동안 4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특히 하루에 4시간 배정되어 있는 1:1 수업은 4명의 선생님과 돌아가며 50분씩 각각 주제에 맞게 대화하는 것이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어 대화를 통해 필리핀 문화를 배우고 여러 주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얻을 수 있었다. CDU ESL CENTER에는 스파르타 코스 외에도 많은 코스가 있지만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다음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에게도 스파르타 코스를 추천해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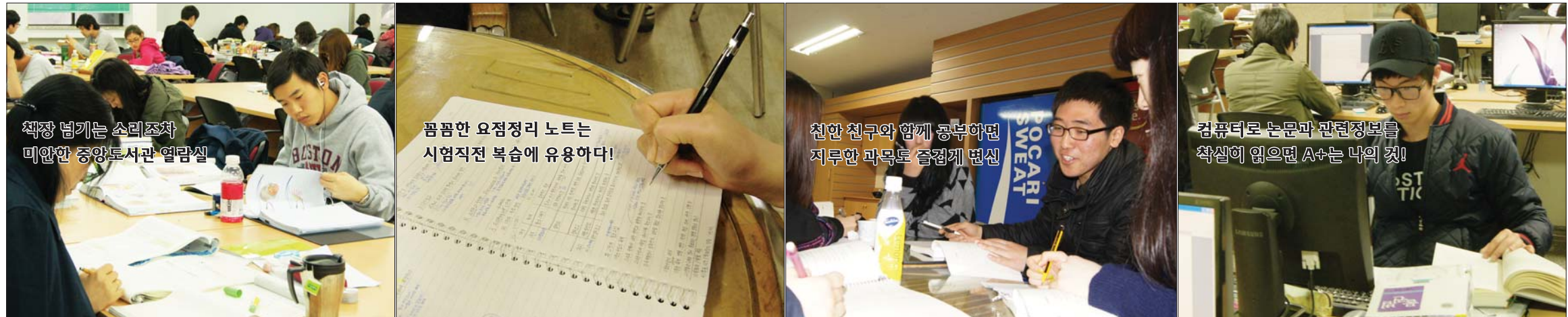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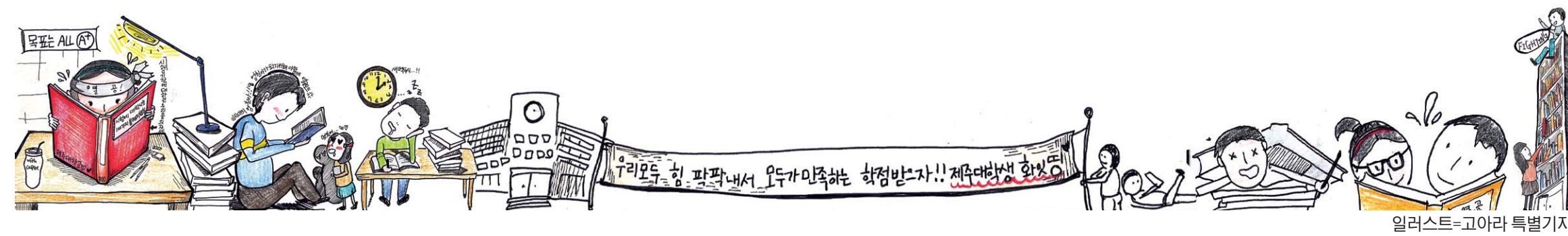
또 학교에서 교직원 봉사활동, 아일랜드 호핑(여러 섬을 관광하는 것), 스노우 쿨링(스쿠버 다이빙과 비슷한 체험), 보홀섬 관광, 요양원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주말계획을 제공해 줬다.

6주라는 시간 동안 사용한 영어를 통해 영어로 말하고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고, 앞으로 영어를 말하거나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 제대로 된 영어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혹은 영어공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국제교류센터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천한다.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해외에 나가 실제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몸으로 겪고 왔으면 한다.

문형석(행정 3)

공부법만 알아도 학점이 켑충켑충... “내게 알맞은 방법 쓰면 공부가 쉬워져요”



사각거리는 연필소리와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곳.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시험기간만 되면 깊은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 학생들로 가득 찬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시험이 끝나면 A+부터 F까지 희비가 엇갈린다. 시험이 끝난 후 눈물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공부법을 알아봤다. 자신과 어울리는 공부법을 찾아보고 이번학기에는 꼭 A+성적표를 거머쥐어 보자.

암기위주 과목에는 '요점공책'을

시험기간은 짧고 공부해야 하는 범위는 방대하다. 시험 직전까지 시험범위에 파묻혀 허우적대고 싶지 않다면 요점공책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단원의 핵심을 공책에 적고 중요한 포인트에 별표와 색색의 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효과적이다. 이수정 (행정 1)씨는 “손으로 적으면서 내용을 되뇌면 기억이 오래간다”며 “암기위주 과목에 꼭 맞는 공부법”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부법은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다. 단정한 글씨로 깨끗이 정리하고 핵심내용에 귀여운 스티커까지 붙이다보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발로 글씨를 쓰는 악필의 소유자들은 컴퓨터로 요점정리를 하기도 한다. 타이핑이 빠른 사람은 순식간에 요점공책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공부법의 최대 장점은 시험 직전에 한

눈에 요점을 쑥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탄탄한 요점공책 하나면 시험을 앞두고도 떨지 않고 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글씨가 느린 사람은 만리장성을 쌓는 심정으로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요점공책을 만들다가 가끔 공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지만 참아야 한다. 참는자만이 A+를 손에 얻는다.

깜박 졸았던 수업은 '타임플레이'가 최고!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범생이라도 하루쯤은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이미 놓친 수업을 되돌릴 수도 없고... 최후의 방법은 바로 '타임플레이'. 여럿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이 공부법은 놓친 부분, 어려운 부분을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 좋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잃어버린 수업 자료도 빌려서 볼 수 있고, 교재가 여러 권일 경우 돌려서 볼 수 있어 좋다. 홍승환 (전산통계 1)씨는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하나가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다”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따분하지 않고 즐겁다”고 말했다. 이 공부법은 공부와 함께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함께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다 보면 도서관 친구는 어느새 절친한 친구가 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부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다. 친구와 너무 친해지면 공부를 하다가 수다를 떨거나 틈만 나면 간식을 먹으며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된다. 친구와 함께 놀면 죄책감이 덜

어져서 더 위험하다. 부모님께서는 “공부하다가 새벽에 운행하는 도서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해놓고, 후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다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벌금을 내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산만한 사람은 '알람시계형' 공부법을

책상에만 앉으면 자꾸 다른일을 하게 되는 '정서불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산만해서 잘 집중이 안되는 이들에게 꼭 알맞는 공부법은 '알람시계형' 공부법이다. 이 공부법은 수첩에 시간단위로 공부할 부분을 적어놓는 것이다. 각 시간마다 할당량을 정해놓고 공부하면 시간 내로 공부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다. 매 시간마다 공부 할당량을 조금씩 해내면 까마득하던 시험범위도 어느새 똑딱 해지을 수 있다. 이때 스톱워치로 시간을 쟈다거나 제한시간에 알람시계를 맞춰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공부스케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공부한 부분을 지워나가는 것도 좋다.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목록에서 지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 성취감이 들어서 공부에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공부스케줄을 짜는 일에 너무 몰두하면 스케줄만 짜다가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 공부스케줄은 시간단위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일단 공부에 돌입해야 한다.

손하나 까딱 않고 이해하는 '돌부처 공부법'

교재와 논문, 발표자료 등 자료가 방대한 수업에서는 '돌부처형 공부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 공부법은 자료를 차분히 읽기만 하는 것이다. 손으로 쓰면서 외우지 않아서 공부효과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이 공부법을 따라올만한 것은 없다. 문제풀이를 해야하는 과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많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에서 이 공부법은 빛을 발한다. 고동현 (행정 1)씨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며 “교재 말고도 노트필기한 것과

각종 자료를 읽으면 좋다”고 말했다. 고씨의 말처럼 이 공부법을 사용할 때에는 교재 외에도 논문, 발표자료, 인터넷자료, 신문기사 등 폭넓은 읽을거리를 접해야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 언뜻 보면 돌부처처럼 굳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공부법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면 B4용지에 작성하는 서술형 문제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계속 읽기만 한다면 졸음폭풍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공부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 등 잠들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운정 (화학공학 3)씨는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졸음도 쫓고 지루함도 줄어 들어서 좋다”고 조언했다. 고희희 기자

<p><중간고사 기간 도서관 버스운행> ○노선: 구제주, 신제주방면 ○기간: 시험기간 2주전부터 일주일간 -시간: 새벽 12시 5분 중앙도서관 출발 ○기간: 시험기간 1주전부터 시험기간 -시간: 새벽 12시 5분, 새벽 1시 5분, 새벽 2시 5분 중앙도서관 출발</p> <p><총학생회 시험기간 간식 나눔> ○기간: 4월 18일~4월 21일 ○시간: 오후 9시</p>	<p>○장소: 총학생회 사무실 앞 선착순</p> <p><총학생회 시험기간 슬리퍼&담요 대여> ○기간: 4월 11일~22일 (주말제외)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총학생회 사무실 ○방법: 학생증과 연락처를 기록한 후 2박3일 대여 ○보증금: 슬리퍼 3천원, 담요 천원 반납시 보증금 돌려줌.</p>
--	--

문화단신

박물관, 「제주옹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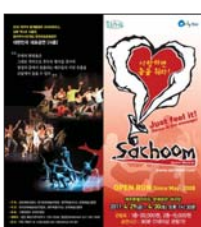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동진)이 제주도의 전통옹기를 주제로 박물관 도록Ⅶ 『제주옹기, 삶의 일

상을 담다』를 발간했다. 도록은 제주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옹기를 통해 제주 도예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담아냈다.

제주CBS, 재즈뮤지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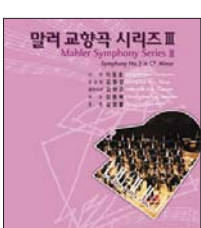
1세대 재즈뮤지션들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브라보! 재즈라이프' 공연이 제주CBS 주최로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15,000원이다. 사전에 예매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748-7400

'사랑하면 춤을 춰라' 뮤지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창작댄스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팝댄스 등이 유쾌하게 어우러진 댄스뮤지컬이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5천원이다. 문의=710-7643.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주도립교향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가 연주된다. 무대는 이동호 지휘자의 지휘와 오보에 김형섭, 클라리넷 김현곤, 바순 김충배, 호른 김영률씨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4월15일까지!!
충치지마세요!

제주대학교 Smart캠퍼스 구축

“모바일 IT 기반의 최첨단 Smart 캠퍼스 실현을 위하여 kt와 제주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모바일캠퍼스 인프라구축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 / 대학 정보화 위상 제고
대학내 최첨단 모바일 통신 환경 구축으로 정보화 이미지 제고

학사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
학사 행정 업무의 이동성 제공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 부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정보의 획득 욕구 충족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방법과 교육공간의 확보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고취
대학 구성원의 대학에 대한 애교심 고취

Green캠퍼스 구현

Mobile캠퍼스 구축

Open캠퍼스 실현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스마트폰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11년 1월 17일(월) - 4월 15일(금)
- 가입자격: 현 제주대학교 소속 구성원 전체
- 스마트폰 공급방법
 - 아이폰4(16G) 공급가 (기본료 45,000원 기준)

약정개월	기기금액	시중가	지원금	제주대공급가
24		264,000		126,000
30	814,000	138,000	138,000	0
36		13,360		-124,640 월 사용료에서 분할 공제
- 교내 안내장소
 - 장소: 정보통신원 1층 교육지원실
 - 전화: 064)751-5560, 5570
 - 기타예약 및 가입 문의 사항: KT 전하진 과장 (010-9838-3098)로 연락
- 스마트폰 케이스 제공 (개통확인자에 한함)
 - 스마트폰 케이스는 정보통신원 1층 교육지원실에서 직접 수령
- 아이폰4 범퍼 제공 (방문수령)
 - 장소: 대우일렉서비스 제주 서비스센터(연동동사무소 옆)